





















4th 부평작가열전 [화가의 방]

한 한 후기, 조형의 조화, 예술적 영감으로 감동이 공존하는 학생의 환기, 조형의 조화, 예술적 영감으로 감동이 공존하는 학자의 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다.

부정막기업전은 201년 시작된 이래함께 만드는 지역마술의 최선의 조화'를 이루고자 #이다 새로운 주제로 관광객을 만나는 부경구문화재단의 연례 기획전시이다. 전시는 #이다 새로운 주제로 관광객을 만나는 부경구문화재단의 연례 기획전시이다. 전시는 살과 소형성의 담구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조한 지역의 역량있는 작가들을 살광 소명하는 간사이다. 부경의 작가들의 살과 지역적 특색이 오롯이 녹아있는 작품 물을 통해 지역과 함께 중 쉬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화기에 방, 객업실이라는 불리는 그 곳은 현실의 환기, 조명의 조화, 예술적 영감으로 강동이 궁촌하는 공간이다. 또한 캔버스, 물감, 철, 나무와 흙 같은 물질과 붓, 나이프, 물, 정 등의 연강,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이라는 상대와 영혼의 싸움을 벌이는 목적을 통해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예술혼이 존재하는 [방]이다.

전사는 이 바가의 땅이서 탄생된 작용과 함께 그 [방]에서 그들을 존재하게 만든, 육충인무계의 노동의 흔격과 시간의 호통이 심작되는 물질과 연장, 그리고 그들에게 양강을 추었던 그 이번 것이 전시된다. 자신만의 작품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감각적 중심어 각업적인 실상, 전하는, 정준식, 최금당, 최은자 작가와 부평을 대표하는 젊은 함께 어디스로가 및 부평이라는 지간이 있원진, 해순황 작가의 유화, 수채화, 조각, 약을 등에 들어나는 물질과 연장, 영강의 도구들이 응집된 [화가의 방]이 눈 앞에 된다. 자신의 강화 중요합의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 위해 되기록 하면다.



























